

유란시아서

<< [제 2 편](#) | [부분](#) | [내용](#) | [제 4 편](#) >>

제 3 편

하나님의 속성

3:0.1 (44.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의 궤도를 다스린다. 그러나 바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하다시피, **하나님**은 지역 우주에서 이 **아들들**의 몸 속에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아들들**은 시간 구역에서, 공간의 진화하는 우주에서 소용돌이치는 여러 행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몸소 표현한 것이다.

3:0.2 (44.2) **높이 성격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낮은 계급의 창조된 지적 존재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무한하고, 따라서 더 알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불가시성을 **아들들**이 보상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시한 것이요, 영원의 궤도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에 본래부터 있는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3:0.3 (44.3)

창조자 신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신분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성품의 집합이다. **창조자** 신분의 이 보편적 기능은,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정된 속성에 제약받고 통제되어 영원히 명시된다. 신성한 성품 중에서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보다 먼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신의 창조자** 성품이 모든 다른 성품 · 활동 · 속성보다 앞설 것이다. **신의 창조자** 신분은 궁극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보편적 진실이 된다.

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3:1.1 (44.4)

우주의 아버지가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두루 계심을 이룬다. **하나님** 혼자서 두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시편(詩篇)의 저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가 계신 앞에서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외쳤듯이,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동시에 계신다.

3:1.2 (44.5)

“나는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주의 아버지**는 방대한 창조에서 모든 구석,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늘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안에서 채우시는 가득한 계심”이요, “모든 사람 안에서 만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격 개념은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모두이고, 그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보**는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으며, 결코 결과를 분석한다고 원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속박을 받지 않는 그의 자유 의지 창조 활동의 결과로 생긴, 그 창조의 총합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지만, 그 우주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3:1.3 (45.1) **아버지**의 계심은 끊임없이 총 우주를 순회한다. “주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하늘의 저 끝까지 순회하시니라. 아무것도 그의 빛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다.”

3:1.4 (45.2)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간 속에서 산다.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시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도다.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준 이 선물은 사람에게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이로다.” “그는 늘 계시고, 만물에 침투하는 **하나님**이라.” “영구한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사 아이의 지성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찾으러 떠나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사느니라.” “참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그는 우리의 일부요,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는 아이 속에서 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로다.”

3:1.5 (45.3) 인류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말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를 때에도 너희는 깃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그가 인간 지성

속에 갇혀 있고 그 지성과 함께 **생각 조절자**가 악한 생각의 결과를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3:1.6 (45.4) **하나님**의 두루 계심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성품의 일부이다. 공간은 **신**에게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파라다이스**와 중앙 우주에서만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계신다. 따라서 **하보나**를 도는 여러 우주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켜볼 수 있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시공 우주를 다스리는 동급 창조자 · 통치자의 군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계심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계시는 회로들과 **파라다이스** 섬을 포함하여, 신의 계심 개념은 겉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경로의 범위가 넓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계심과 그의 영원한 동위자(同位者) 및 대리자들의 활동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의 무한한 필요 조건을 모두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성격 회로와 **조절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직접, 혼자서 활동한다.

3:1.7 (45.5)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 인력(引力) 회로에, 항상 같은 정도로, 질량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것은 이 계심을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데 반응하여,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달라붙고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창조의 본래 성질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근원 중심**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 **절대자**는 영원한 미래 우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저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 현재 · 미래의 물리적 우주를 잠재적으로 침투한다. 그는 이른 바 물질 창조가 엉겨

붙는 시원적 기초가 된다. 신의 독점 대리자들 가운데 누구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주 활동 단계에 간섭함으로, 이 비영적 신 잠재성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에 두루, 여기저기에 사실이 된다.

3:1.8 (45.6) **하나님**이 지성 안에 계신 것은 **합동 행위자**, 곧 **무한한 영**의 절대 지성과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심은, 유한한 창조에서, **파라다이스의 으뜸 영**들의 우주 지성이 어디서나 활동하는 데서 더 잘 파악된다. **첫째 근원 중심**이 **합동 행위자**의 지성 회로에 잠재적으로 계신 것 같이, 그는 **우주 절대자**의 긴장 속에 잠재적으로 계신다. 그러나 인간 서열의 지성은 **합동 행위자**의 딸, 곧 진화 우주의 **신성한 봉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3:1.9 (46.1) 어디에나 계시는 영, **우주의 아버지의 영**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계심의 작용, 그리고 **신 절대자**의 영구한, 신의 잠재성과 함께 조정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이나, **무한한 영**이 지성을 수여하는 것도 **생각 조절자**의 직접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듯하며, **조절자**는 자녀인 인간의 마음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3:1.10 (46.2) 한 행성 · 체계 · 별자리, 또는 지역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어떤 창조 단위에서도 그러한 계심의 정도는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계심이 어느 정도인가 재는 척도가 된다: 이것은 체계와 행성들 자체에까지 미치는 광대한 우주 조직 편에서, 대규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단계에 **하나님**의 고귀한 계심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어떤 행성들이 (또는 체계들까지) 영적 암흑으로 깊이 굴러 떨어졌을 때, 이들이 더 큰 창조 단위와 교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되거나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고집 세고 사악하고 모반하는 소수

(小數)의 이간 행동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세계들이 자구(自求)하려는 영적 방어 반응이다.

3:1.11 (46.3)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의 아들 — 인격자들 — 을 모두 회로로 연결하지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의 둘째 분과 셋째 분**으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얼마나 먼가에 따라서 한정되며, 그들이 달성하는 운명이 그러한 수준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확대된다.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은, 그들에게 **신비의 훈계자**와 같은 **아버지** 분신이 깃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질적 계심은,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그 지성이 **조절자**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3:1.12 (46.4) **아버지**의 계심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물러나서 따로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과 혼 속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한계를 직접 좌우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사람이나 행성이나, 체계나 우주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시간 구역에서 **아버지**는 오직 **칠중 신**을 구성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에게 다른 영예를 수여하며, 그들은 유한한 우주들을 지은 동급 창조자이다.

2. 하나님의 무한한 힘

3:2.1 (46.5) “전능한 주 **하나님**이 군림하심”을 온 우주가 알고 있다. 이 세계와 기타 세상의 사무는 신성하게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땅의 거주민 사이에서 뜻대로 행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참말이다, “**하나님**의 권능 외에 아무 권능이 없느니라.”

3:2.2 (46.6) 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한계 안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민족과 행성과 우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겪는 진화 과정은 지역 우주 **창조자** 및 행정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며, **우주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펼쳐지고 조화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슬기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 계신다. 그는 공간 속에서 세계들을 떠받들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 둘레에 우주들을 빙그르르 돌린다.

3:2.3 (47.1) 신의 모든 속성 가운데, 특히 그의 전능하심이 물질 우주를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전능(全能)을 가장 잘 이해한다. 비영적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첫째 근원 중심**이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 자연 현상의 시초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실에 기초를 둔다. 이 신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기타 물질적 명시가 파생된다. 빛, 열이 없는 빛은,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았다.

3:2.4 (47.2) **하나님**은 모든 힘을 통제한다. 그는 “번개가 갈 길”을 만들고, 모든 에너지의 회로를 예정하였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구한 손아귀에,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되는 인력 통제에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이처럼 그의

웅장한 회로 둘레를 언제까지나 돌며, 이것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행렬,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이다. 모든 사물과 존재의 **파라다이스** 성격 중심을 모든 우주가 영원히 돈다.

3:2.5 (47.3)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절대 수준에서 어디서나 지배하는 성질과 관련되며, 절대 수준에서 물질 에너지, 지성 에너지, 영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아버지** — 만물의 근원 — 과 가까운 거리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파라다이스**의 일력(一力)도 **파라다이스**의 영도 아니니까, **우주의 아버지**에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성에 맞추어 —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 조절한다.

3:2.6 (47.4) **우주의 아버지**는 일시적 물력이나 바뀌는 힘,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슬기는 우주의 어떤 긴급 사태도, 이 모두를 이겨 나가기에 전적으로 넉넉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 사태가 생기는 대로 **아버지**는 그 사태를 모두 예견했고, 따라서 초연하게 우주 사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한다.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은 앞뒤를 분별하지 않는 물력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3:2.7 (47.5) 긴급 판결이 내리고, 자연 법칙이 중단되고, 그릇된 적응이 인지되고, 그 상황을 시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 듯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한 **하나님** 개념은, 네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너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너의 조사 규모가 제한된 데서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는, 그 영역에서 더 높은 법칙의 존재, **아버지**의 관대한 기질, 그의 무한한 속성, 그가 자유 의지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네가 전혀 무지(無知)하기 때문이다.

3:2.8 (47.6)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행성의 인간은 여기저기, 공간의 여러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고, 그 수와 계급이 거의 무한하다. 그들의 지능은 너무 다양하고, 지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때때로 너무 거칠며, 상상력은 너무 단축되고 지역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지능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일반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인 너에게, 전능한 **창조자**의 많은 활동이 멋대로이고, 초연하고, 뜸하지 않게 냉혹하고 모질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참말이 아님을 나는 너에게 다시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목적이 있고 총명하며,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선을 고려한다. 반드시 한 개인 존재나, 개별 민족이나, 개별 행성, 아니 개별 우주의 최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자의 복지와 최선을 위한 것이다. 시간 시대에는 부분의 복지가 때때로 전체의 복지와 다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궤도에서 그렇게 명백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3:2.9 (48.1)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끔 가족 훈련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고, 자연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총 지혜의 결정과 최종 판결의 결과이며, 이것은 무한한 지성의 의지, 결코 그르칠 수 없는 의지의 선택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한 성격자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합동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완전한 성격자의 조사 · 선견 · 염려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모든 창조의 영원한 최대 복지를 포함한다.

3:2.10 (48.2)

그래서 초연하고, 부분적이고, 유한하고, 거칠고, 상당히 유물주의인 너의 관점, 그리고 네 존재의 성품에 본래부터 있는 한계가 너무 장애가 되어서, 너는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너에게는 신의 행위가 사람을 짓밟는 잔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동료 인간이 누리는 위안과 복지, 행성의 행복, 개인의 번영에 아주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듯이 보인다. 네가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고 그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인간의 선견이 한정되었기 때문이요, 너의 견문이 제한되고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행하지 않는 많은 일이 진화 세계에서 일어난다.

3:2.11 (48.3) 신의 전능은 **하나님** 성격의 다른 속성과 함께 완전히 조정된다. **하나님**의 힘이 우주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3:2.12 (48.4) 1.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함에 따라서.

3:2.13 (48.5) 2.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데 따라서, 우주 성격자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2.14 (48.6)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함과 응보에 따라서.

3:2.15 (48.7)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성품은 신성하며, 의지는 최종이고 속성은 무한하며, 지혜는 영원하고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은 **신** 안에서 통일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다운 **아들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그 외에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중앙 우주의 바깥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최상위**의 진화적 계심이 제한하며, **궁극위**의 궁극에 이르는 계심이 조절하고, 실존적인 세 **절대자** — **신 절대자**, **우주 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 가 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은 만물을 아신다**

3:3.1 (48.8)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신의 지성은 모든 창조의 생각을 의식하고 또한 알고 계신다. 사건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은 자세하고 완전하다. 그로부터 나가는 신다운 개체들은 그의 일부분이며, “구름을 저울로 다는” **하나님**은 또한 “지식도 완전하도다.” “주의 눈은 어디에나 있도다.” 하찮은 참새에 대하여, 너희의 위대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 가운데 하나도 내 **아버지**가 모르고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네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털의 수도 계산되었도다.” “그는 별의 수를 세고, 모든 별을 이름으로 부르시니라.”

3:3.2 (49.1) **우주의 아버지**는 공간에 있는 별과 행성의 수(數)를 실제로 아는, 온 우주에서 유일한 분이다. 어떤 우주의 어떤 세계도 항상 **하나님**은 의식하고 있다. 그는 또한 말씀하신다: “나는 분명히 내 민족의 고난을 보았고 저희의 외침을 들었으며, 저희의 서러움을 아노라.” 왜냐하면 “주는 하늘에서 보고, 사람의 아들들을 모두 보며, 그의 거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내려다보시니라.”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며,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나서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하고 인간의 자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시니라.” “만물이 벌거벗었고,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분의 눈에 열려 있도다.” 그리고 “그는 너의 뼈대를 알고, 네가 티끌인 것을

기억하시니라,”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인간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예수**는 말씀했다: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니라.”

3:3.3 (49.2) **하나님**은 만물을 아는 무제한 능력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의식한다. 그의 성격 회로는 모든 성격자를 포함하고, 비천한 인간에 관한 그의 지식도, 내려오는 계열의 신다운 **아들**을 통해서 간접으로, 그리고 깃드는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직접, 보충된다. 더군다나 **무한한 영**은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

3:3.4 (49.3) **하나님**이 죄가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알기를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온통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비록 자기 자녀들의 자유 의지 행동을 **하나님**이 미리 안다 하더라도, 그러한 선견은 그들의 자유를 털끝만큼도 취소하지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는다.

3:3.5 (49.4) 전능(全能)은 할 수 없는 것, 즉 신답지 않게 행위하는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지(全知)도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도저히 유한한 머리가 알아듣게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창조자**의 의지가 미치는 테두리와 한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4.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3:4.1 (49.5) 우주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거기에 자신을 연달아 수여하는 것은, 그 우주들이 계속 **신의** 중심 성격 안에 거하고 머무름에 따라서 권능의 잠재성이나 지혜의 저장을 전혀 줄이지

않는다. **파라다이스 아들들**, 그에 종속된 여러 우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양한 생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수여한 결과로서, **아버지**는 소유한 물력 · 지혜 · 사랑의 잠재성을 결코 조금도 줄인 적이 없고, 그의 영화로운 성격의 어떤 속성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3:4.2 (49.6) 새 우주를 창조할 때마다 새로운 인력(引力)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창조가 무기한으로 영원히, 아니 무한까지 이어져 궁극에 물질 창조가 제한 없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라다이스** 섬에 머무르는 통제하고 조정하는 힘은, 그렇게 무한한 우주를 통달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한계 없는 우주에 그지없는 물력과 힘을 이처럼 부여한 다음에, **무한자**는 여전히 똑같은 정도의 물력과 에너지로 넘치게 충전되어 있을 것이다. **무제한 절대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요, 마치 물력과 에너지와 힘을 허다한 우주 재산에 결코 쏟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3:4.3 (50.1) 지혜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그 영역의 생각 과정에 아주 아낌없이 분배된다는 사실은, 전혀 신의 지혜의 중심 근원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주의 수가 늘어나고, 그 영역에 사는 존재들의 수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 늘어남에 따라서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진 이 존재들에게 지성이 줄곧, 끝없이 수여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 성격은 바로 그 영원 · 무한하고 전적으로 지혜로운 지성을 품을 것이다.

3:4.4 (50.2) 너희의 세상과 기타 세계에서 남녀에게 깃들라고 **하나님**이 영 사자를 자신으로부터 내보낸다는 사실은, 신성하고 전능한 영 성격자로서 활동하는 그의 능력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낼 수 있고 보내도 좋은 그러한 영 **훈계자**의 범위나 숫자에도 절대로 아무 제한이 없다. 이처럼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신성하게 자질을 받은 이 필사자가 점진적으로 연속하여 존재할 수 있는, 한없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봉사하는 이 영 개체로서, 자신을 이처럼 험하게 분배하는 것은, 온통 슬기롭고 전지 · 전능한 **하나님**의 몸 안에 머무르는 슬기, 완전한 진실과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줄이지 않는다.

3:4.5 (50.3) 시간 세계의 필사자에게는 앞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신다. 나는 **신**이 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왔지만, **신**의 여러 속성이 무한한 것에 관하여, 나는 주제넘게 완전히 이해하고 말할 수 없다. 오직 무한한 지성이 무한한 존재와 영원한 행위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3:4.6 (50.4) 필사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유한한 지성은 그러한 절대 진실이나 사실을 꿰뚫어볼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유한한 인간은, 그러한 무한한 **아버지** 사랑의 영향, 충분하고 줄어들지 않은 영향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 — 글자 그대로 맛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참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체험의 질이 무한한 한편, 그러한 체험의 양은 인간의 영적 감수(感受) 능력, 그에 응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련된 능력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된다.

3:4.7 (50.5) 무한한 품질을 유한자가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정된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데, 필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실 때문이다 — 안에 무한의 분신(分身)이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가장 가깝고 귀중한 방법은, 사랑으로, 사랑을 통한 접근이니, **하나님**이 사랑인 까닭이다. 그러한 모든 독특한 관계는 우주의 사회학에서 사실적 체험이다. **창조자**와 인간의 관계이다 —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다.

5. 아버지의 최상 통치

3:5.1 (50.6)

하보나 이후의 창조들과 연락하는 경우에, **우주의 아버지**는 직접 전함으로 그의 무한한 힘과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 하위 성격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두를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신다. **아버지**가 맡긴 어떤 권한도, 필요가 생기고 신의 지성이 그렇게 택한다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직 위임받은 성격자가 신이 맡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때에, 그러한 태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보된 신의 권능과 잠재성의 한계 안에서, **아버지**는 따로 행동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지시에 따른다. 그 선택은 언제나 어김없이 완전하고, 무한히 즐거운 선택이다.

3:5.2 (51.1)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우주 조직을 통해서 밑에까지 끊임없는 일련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행성 영주**에서 끝나며, 이들은 **아버지**의 광대한 영토에서 진화하는 구체들의 운명을 지도한다.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는 왕을 폐하고 왕을 세우시니라.” “**최고자**들은 사람의 나라에서 다스리도다”하는 외침은 단지 시(詩) 같은 표현만은 아니다.

3:5.3 (51.2)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 **우주의 아버지**는 반드시 뜻대로 못할지 모르지만, 한 행성의 운영과 운명의 경우에 신의 계획이 지배하며, 지혜와 사랑의 목표, 영원한 목표는 승리를 거둔다.

3:5.4 (51.3) **예수**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탈취할 수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의 끝없는 창조의 다양한 작용을 얼핏 보고 어지러이 광대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개념에 멈칫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파라다이스** 중심에서, 확실하고 영구하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지적 존재의 은혜로운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 오직 “한분의 **하나님**, 모든 이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는 “만물 위에, 만물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그는 어느 것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하느니라.”

3:5.5 (51.4)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존재의 흥망은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진화 인간의 생명은 모두 어떤 불가피한 것들에 시달린다. 다음을 생각해 보아라:

3:5.6 (51.5) 1. 용기 — 건전한 인품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어려움에 부딪치고, 실망에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을 길러야 한다.

3:5.7 (51.6) 2. 이타심 — 동료에게 봉사하는 것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생의 체험은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상황에 부딪치게 만들어야 한다.

3:5.8 (51.7) 3. 희망 — 큰 신뢰 — 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안에, 그리고 되풀이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늘 부딪쳐야 한다.

3:5.9 (51.8) 4. 믿음 —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주장하는 것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의 지성은, 아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범위가 항상 더 큰 어려운 곤경에 빠져야 한다.

3:5.10 (51.9) 5.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이 이끄는 데로 어디든지 기꺼이 가려는 마음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잘못이 있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3:5.11 (51.10) 6. 이상주의 — 신다운 것에 가까이 가는 개념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비교적 선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더 나은 것을 향하는 억제할 수 없는 추구를 자극하는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한다.

3:5.12 (51.11) 7. 충성 — 최고의 의무에 헌신하는 것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견디어야 한다. 의무에 헌신하는 용기는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이 암시되는 데 있다.

3:5.13 (51.12) 8. 사심(私心) 없는 태도 — 자기를 잊는 정신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필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자아가 인정과 명예를 받으려고 끊임없이 외치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아야 한다. 버려야 할 자기 생활이 없다면, 사람은 신다운 생활을 힘차게 택할 수 없다. 대조가 되어 선을 높이고 구별하는 악의 잠재성이 없다면, 사람은 결코 올바름을 유익하게 움켜질 수 없다.

3:5.14 (51.13) 9. 기쁨 — 행복에서 얻는 만족감 — 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고통스러운 다른 길과 고통받을 가능성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3:5.15 (52.1) 우주 전역에 걸쳐서, 어떤 단위도 전체의 일부분으로 여긴다. 한 부분이 살아남는 것은 전체의 계획과 목적에 협조하는 데, 곧 **아버지**의 신성한 뜻 행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바라고, 충분히 기꺼이 그렇게 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잘못이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진화 세계는 자유로운 지능이 없는 세계일

것이다. **하보나** 우주에는 완전한 거주민이 사는 완전한 세계가 10억 개 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려면 진화 인간은 틀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고 경험이 없는 지적 존재는 처음에 도저히 한결같이 지혜로울 수 없다. 오로지 인간의 의지가 일부러 비도덕적 판단을 의식하면서 지지하고, 알면서 고를 때에야 잘못된 판단(악)의 가능성이 죄가 된다.

3:5.16 (52.2) 완전한 신성한 우주에는 누구나 본래부터 진실 · 아름다움 · 선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보나** 세계들의 거주민에게는 선택의 자극으로서, 비교가 되는 가능한 여러 가치 수준이 필요 없다. 그러한 완전한 존재들은, 반대되고 생각을 강요하는 모든 도덕적 상황이 없어도 선을 찾아내고 선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완전한 존재의 도덕적 성품과 영적 지위는, 그렇게 존재하는 사실 덕분에 그러하다. 오직 그들의 선천적 지위 안에서 그들은 체험으로 승진해 왔다. 필사 인간은, 하늘 가는 후보자 지위조차도, 자신이 믿고 소망함으로 얻는다. 인간의 머리가 파악하고 인간의 혼이 얻는 신다운 것은 무엇이나 체험으로 얻은 것이다. 그것은 몸소 체험하는 실체이며, 따라서 잘못이 없는 **하보나** 인격자의 선천적 선과 올바름과 반대로, 독특한 재산이다.

3:5.17 (52.3) **하보나**의 인간들은 용감하게 타고났지만, 사람다운 의미에서 용감한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친절하고 생각이 깊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이타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즐거운 앞날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진화 세계에서 믿음 있는 필사자처럼 절묘한 방법으로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가 안정되어 있음을 믿지만, 필사 인간을 동물의 지위로부터 **파라다이스** 문 앞까지 올라가게 하는 유익한 신앙을 도무지 모른다. 진실을 사랑하지만, 혼을 구원하는

진실의 성질을 전혀 모른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지만, 그렇게 태어났다. 환희에 이르는 선택으로 이상주의자가 되는 최고의 기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성스럽지만, 불이행의 유혹에 부딪쳐서, 마음을 다하여 총명하게 의무에 헌신하는, 떨리는 기쁨을 결코 맛본 적이 없다. 그들은 사욕(私慾)이 없지만, 싸우기 좋아하는 자아를 당당하게 정복함으로, 결코 그런 수준의 체험을 얻은 적이 없다. 그들은 쾌락을 즐기지만, 고통받을 뻔했다가 달아나는 기쁨이 얼마나 단지 알지 못한다.

6. 아버지의 수위성

3:6.1 (52.4) 신으로서 사심없이 완전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주의 아버지**는 권한을 포기하고 권력을 넘겨주신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제일 먼저이니, 그의 손은 우주 영역의 상황을 조종하는 강력한 지렛대에 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마지막 결정권을 쥐고 있으며, 바깥으로 뻗고 소용돌이치는, 항상 회전하는 창조의 복지와 운명에 대하여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한으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전능한 거부권을 어김없이 행사한다.

3:6.2 (52.5)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제한이 없고, 그 통치권은 모든 창조의 근본적 사실이다. 우주가 필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 우주는 어쩌다가 생기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주는 지은 작품이요, 따라서 **창조자**의 뜻에 통째로 지배된다. **하나님**의 뜻은 신성한 진실이요, 살아 있는 사랑이다. 따라서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서

완성되는 창조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니, 하나는 선 — 신에 가까움 — 이요, 하나는 잠재하는 악 —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 이다.

3:6.3 (53.1) 모든 종교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 유일한 **하나님이** 우주를 통일되게 다스린다는 개념에 도달한다. 우주의 원인은 우주의 결과보다 낮을 수 없다. 우주의 생명과 우주 지성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은 이것들이 나타나는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인간의 지성은 그보다 낮은 존재 계급들의 형편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의 지성은, 오로지 상급의 생각, 그리고 목적을 가진 의지(意志)가 현실로 있음을 인식해야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주의 아버지**가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고서 도덕적 존재인 인간을 설명할 수는 없다.

3:6.4 (53.2) 기계론적 철학자는 보편적 최고의 의지가 있다는 관념을 거부한다고 공언하며, 우주 법칙을 공들여 설명하면서 바로 그 최고의 의지의 작용을 깊이 숭배한다. 그러한 법칙이 스스로 작용하고 자명하다고 생각하다니, 그 기계론자는 그 법의 **창조자**에게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존경을 표하는가!

3:6.5 (53.3) 우주에 대하여 논리와 일관성이 있는 철학 개념은 유물론(唯物論)이나 유심론(唯心論)의 가설 위에 세울 수 없으니, 이는 이 두 생각 체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우주를 왜곡하여 보도록 강요되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내면을 바깥에서 보는 우주를 접촉하며, 후자는 바깥을 안에서 보는 우주의 성질을 깨닫는다. 그러면 과학이나 종교는 결코 그 자체로서 저절로, 혼자 힘으로, 인간 철학의 안내가 없이, 신의 계시의 빛을 받지 않고서, 보편적 진실 및 관계를 적절히 이해하기를 바랄 수 없다.

3:6.6 (53.4)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고통을 받는가? 나는 모른다. **창조 아들**은 필사자처럼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하고, 때때로

고통받는다.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은 다른 의미에서 고통을 받는다. 나는 **우주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고통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성격 회로를 통하든지, 또는 **생각 조절자**의 개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원한 성품을 다르게 수여함으로 그럴 것이다. 그는 필사 민족들에 관하여 이르셨다, “너희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내가 고통을 받노라.”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아버지**답게, 동정하는 느낌을 가진다. 그는 참으로 고통받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고통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3:6.7 (53.5) 무한하고 영원한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는 동력이요 형태이며, 에너지요 과정이며, 원본이자 원칙이요, 계심이자 이상화된 실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는다. 그는 성격 존재이며, 최고의 의지를 행사하고, 신(神)의 자의식을 체험하며, 창조 지성이 내리는 명령을 실행하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만족감을 추구하며, 우주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애정을 보인다. 그리고 더 개인적인 **아버지**의 이러한 특성은, **미가엘**, 곧 너희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했을 때 그의 수여 생애에서 드러난 특성을 살펴봄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3:6.8 (53.6)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들 하나님**은 사람에게 봉사한다. **영 하나님**이 베푸는 은총을 통해서 신의 **아들들이** 예정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모험, 늘 올라가는 모험을 하라고 **영 하나님**은 우주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준다.

3:6.9 (53.7) [우주의 아버지를 계시하는 발표에 배치된 신성한

조언자이므로, 나는 계속하여 신의 속성에 관하여 이 글을 썼다.]